동아일보 - 1934. 04. 02/ 4면/ 2단

自我란 무엇인가

自我의 哲學的 考察(下)

安浩相

三, 自由의 自我

우리는 形體없는 神이 아니라 血肉을 갖은 理性物이다. 肉滯의 存在가 없이는 사람의 現實的 存在가 없는 法이다. 사람은 제 아무리 現實的이 아니라 하며 또 아니 될려고 하지만 제의 運命인 이 現實을 떠날 수가 없다. 現實에서 살며 現實에서 죽는 우리는 이 現實에 存在한 모든 다른 存在者의 힘과 影響을 無限히 받고 잇다. 뿐만 아니라 現實的인 우리는 百年前에 나지도 아니 하엿으며, 또 百年後에 살지도 못할 것이다. 人生의 우슴과 우름은 오직 이 百年이란 동안에 낫다가 들어갈 것이다. 百年의 時間은 無窮時의 瞬間이오 突機다. 요젊은 現在란 瞬間에 生의 存在를 맛보는 우리는 無限한 過去와 永遠한 未來에 □한 것이다. 空間과 時間으로 制約된 우리의 存在는 無限한 外界의 原因들로서 된 것이다. 우리의 存在는 依存이오. 依存의 存在는 奴隸다. 사람의 奴隸性은 前生의 遺物로서 나면서 타고 낫다. 이와 같이 못난 人間! 그러나 人生의 生의 本意와 行爲의 目的은 自己의 타고난 奴隸性의 克服에 잇는 것이다. 사람의 動作에는 目的잇는 行爲가 많으며 이 行爲의 目的의 達成은 많은 外界의 抗力이 征服을 要한다. 環境의 抗力을 征服해서 제의 行爲를 完成해볼수록 사람은 自力의 信念이 나게 된다. 失敗에 우는者 環境의 힘을 더 크게 보지만 成功에 웃는者 自我의 힘을 더 높이 본다.

사람의 참된 行爲에는 自□과 自力 곧 自我의 動力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모든 行爲의 動力의 寃鬼인 自我는 環境에 反抗하며 對立한다. 不行(不幸)의 人間은 제의 自然的 (奴隸的)存在에서만 浮沈하지만 欲行(欲幸)의 人生은제의 反省的 意識으롭부터 出發한다. 反省이란것은 哲學的 意味에서 外界로부터 自我에 돌아옴이다. 그것은 곧 奴隸的 存在를 떠나 自我□□에 돌아옴이다. 自我의 反省은 自我에로의 反省으로서 곧 自由自我의 反省이다.

奴隸的 自我와 反省的 自我와 自由의 自我 다시 말하면 奴隸的 存在와 反

省的 意識과 自由의 精神 이 셋은 사람性의 發展의 過程으로서 곧 人類史의 發展의 階級이다. 모든 發展의 始初는 自我的 存在로부터서다. 만일 發展을 要하는 未發展的 存在가 없으변 發展이될 수가 없다. 어떤 個體에서든지 奴隸的인것과 反省的인것과 또 自由的인것을 찾어 낼 수가 잇다. 저 蒙昧한 無識者로부터 明晳한 有識自까지 庶人으로부터 聖人까지 이 셋은 그들의 必然한 세契機들이다. 다못 그들의 自我意識의 發達如何를 따라 이 세契機들이 種種의 程度로서 나타날 뿐이다. 低級한 人間에는 奴隸性이 强度로 나타나 제의 全存在를 支配하지만, 高尙한 人格者에는 自由性이 强度로 나타나 제의 全存在를 支配한다. 웨르러냐면 前者는 오즉 제의 自然的 存在를 唯一한 存在로 여기지만 後者는 제의 精神的 (文化的)存在에서 제의 참된 存在를 보게 되는 때문이다. 自然的 存在는 環境의 服從에서 될 수 잇지만, 文化的 存在는 環境의 克服에서 되는 法이다. 環境의 服從에는 受動性이 前提이지만 環境의 克服에는 能動性이 前提다. 受動은 沒我로서 奴隸며 能動은 自我로서 □□□터서)自由다.

自由의 自我 그는 오직 能動的이다. 그의 能動性은 環境의 拘束을 받지 않고 오직 제의할 짓만 하며, 갈 길만 갈뿐이다. 奴隸的 自我는 環境에 服從하며 反省的 自我는 環境에 對立한다.

그러나 自由의 自我는 環境의 服從者도 아니며, 環境의 對立者도 아니다. 自由의 自我는 도리어 環境의 主人公이다. 그는 또 저 兩者와 같이 環境을 仰視하거나 賤視하지 않고 다못 愛視할뿐이다. 環境은 결코 自我를 떠나된 獨立的 存在가 아니다. 環境은 그런 것으로서 제의 存在上 벌서 自我活動의 結果며 自我勞力의 結晶이다. 自由의 自我 그는 제가 만든 그 環境을 仰視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賤視하지도 않는다. 그는 環境을 제의 固有한 作品인것을 自覺한다. 남의 것이 아니오. 제 것인 그 環境에서 自我는 넘치는 기쁨과 끝없는 滿足을 보게 되며 제의 限없는 사랑은 그 環境(世界)을 感化시킨다. 世界(宇宙)를 제의 作品이며 表現으로보는 自我는 宇宙를 單只 사랑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無限한 그의 사랑의 눈으로서 이 宇宙를 自我는 無心히 보는 法이 없다. 至大至小의 그 모든 것에 그는 못된 것은 고치며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해서 宇宙의 永遠한 發展 卽 自我의 永遠한 發展을 圖謀한다. 自由의 自我가 없이는 必然의 (機械的)宇宙가 없을 것이며, 宇宙의 機械性이 없이는 自我의 自由를 實現할수가 없다.

自由의 自我는 매인 곳도 없으며 隷屬된곳도 없다 億萬의 外的原因이 그를 强制하며 拘束할수가 없다. 그는 環境의 모든 拘束을 떠낫다. 『自我는 自由다』이란 判斷은 唯一最高의 判斷이며, 또 이 判斷의 本質을 確認코저함이

哲學의 本課題다. 自我가 自由롭지 못하고는 永遠한 眞理와 참된 道德을 차저 낼 수가 없을 것이다. 『良知』와 『良心』이 完全히 發揮치 못함은 오직 物慾이 交□한 때문이라고, 東洋의 聖人賢人은 이미 말슴하시지 않엇든가—眞理의 把握과 道德의 實現은 오즉 自由의 自我라야만 될 것이다. 自我가 環境으로부터 自由롭다는것은 環境을 無□視하며 環境을 背反함이 아니라 環境을 爲하며 環境을 고칠려는 때문이다. 環境의 拘束에 사로 잡혀 自由롭지 못한 그 自我는 제自體가 벌서 不純眞 無能力한지라, 그 永遠한 眞理의 把握과 絶對의 道德의 實現의 目的을 達할수가 없다. 이 目的의 達成은 오직 自我의 自由롭든 活動으로서만 될 것이다. 自我의 自由는 그러므로 目的을 떠난(離脫한)自由가 아니라 도리어 目的『때문인』自由다. 『自由의 自我는 目的을 떠난 自由의 自由다』.

끝으로 할 말슴은『自由의 自我』에 對해서 깊은 考察과 仔細한 說明을 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拙者의 意圖는 다못 自由의 自我는 認識과 行爲 理論과 實踐 眞理와 道德의

最初의前提요 最終의 目的이라는 것만 여기서 表明하려는 것이다. 哲學의 中心問題인 이『自由의 自我』의 깊은 本質觀은 한 偉大한 哲學體系를 이루리라고 拙者는 믿는 것이다.